

“정유사들이 우리 협회를 만든다는 열정과 공감대속에서 석유협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대담 金 演 會
(대한석유협회 홍보과장)

석유협회가 지난 9월 29일로 창립 열돌을 맞았다. 10년전 제5 공화국 출범직후 정부가 그동안 난립해 있던 각종 협회와 조합들을 통폐합해 나가던 어수선한 상황속에서 유독 석유협회를 새로 발족시켰던 것은 에너지문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협회에 거는 정부와 업계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당시 협회창립의 산파역을 맡았던 韓興愚이사(油公)를 찾아 협회 설립의 배경과 과정을 알아 본다.

—오래간만입니다. 협회설립을 위해 수고하시던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간사회원사 법제부장으로서 협회 창립의 산파역을 맡아 주셨는데, 석유협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감부터 들려 주시지요.

『그때 제가 석유협회 설립위원회 간사업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석유협회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석유협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도 큼니다.

석유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석유협회는 석유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와 시사문제등을 심도있게 다루어 석유업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애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뜻깊은 시점에 귀지와 인터뷰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더 없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석유협회가 창립되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난립돼 있던 각종 협회나 조합들을 통폐합해 나가던 어수선한 상황이 아니었습

니까. 그런데 유독 석유협회만을 새로 발족시킨 것은 정부나 업계로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석유협회 설립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1980년초만해도 제2차 석유위기의 여파로 고유가 부담과 물량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석유수급의 안정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동자부에서 석유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와 같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정유5사가 주동이 되어 석유협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석유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을 위해 급변하는 국내외 석유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석유수급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국민과 기업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업무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석유협회 창립은 그 준비에서

부터 발족까지 약 3개월의 최단시 일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준비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유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최초의 모임인 제1차 실무회의가 1980년 6월 17일 유개공에서 열렸습니다. 유개공의 담당이사와 5개 정유사의 법제부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명칭, 사업목적, 회원자격, 임원의 정수등 정관사항을 논의했는데, 특히 토의과정에서 협회의 사단성, 비영리성, 법인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6월 28일에 정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 3일에는 崔東奎 동자부차관(당시)의 초치로 회원사사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동자부측은 부회장과 상임이사 각1명의 상근임원을 두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되어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총회에서 다시 토의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뒤 7월 9일 油公에서 6개 회원사 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의 의안은 정관승인, 회원의 자격기준 승인, 이사와 감사의 선임, 회장의 선임, 설립분담금의 정수, 주사무소 설치등이었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토의된 사항은 정관안에 반영된 협회의 조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협회조직은 총회, 이사회, 비상근회장, 상근부회장, 감사, 업무부, 기획조사부, 홍보실로 확정되었습니다. 그후 8월 2일 동자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8월 5일에

劉載興 油公사장을 초대회장으로 한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협회 직원모집은 신문광고를 통해 8월 5일에 응모를 마감했는데 14명 채용에 무려 8백88명이나 응시해 평균 6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반 설립준비를 끝내고 1980년 9월 29일 상오 11시 삼일로빌딩에서 崔東奎 동자부차관과 회원사 대표를 비롯하여 관계자 다수가 참석

“
대한석유협회는
국내석유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을 위해
급변하는 국내외석유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석유수급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국민과
기업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업무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운데 협회 개소식을 가졌고, 폐회후에 현판식을 가짐으로써 석유협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석유협회 창립작업중 특히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유협회 발족은 정부의 권고적 의견에서 비롯되었지만, 막상 협회

설립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유사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우리 협회를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단히 열성적이었습니다. 특히 부장급간부요원채용 면접시험때는 회원사 사장님들이 직접 참석하였고, 또 협회가 제기능을 다하려면 구성원에 대한 대우가 회원사 수준을 능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분도 계셨지요. 그래서 설립 초기의 협회직원에 대한 봉급수준은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설립과정에서 협회의 조직에 관하여 정부와 회원사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 회비징수방식에 있어서 균등부담이나 차등부담이냐의 문제로 회원사간에 견해가 상충되기도 하였습니다.』

—석유협회에 대해 회원사와 각계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석유협회는 정유5사를 회원으로 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회원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협회는 독자적인 사단법인으로서 개개 회원사의 이익을 초월하여 정유사와 대리점 및 주유소를 포함한 국내 석유업계 전체의 의견을 집약, 조정, 포용하는 한편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지난 10년동안 협회의 활동을 보면 제한된 인력과 재정여건하에서도 창립당시의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회원사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친밀감을 조성하여 상호 유대의식을 강화시키고 회원사 상호간의 이해조정 의 구심체로서 시장정상화에 기여해 왔으며,

둘째, 석유협회보와 석유연보 및 석유관련책자등 석유관계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셋째, 해마다 석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석유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역점 활동부분을 든다면 정유업계와 유통업계를 망라하여 그들 상호간에 분열된 의견을 통일시켜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과 정유산업에 대한 국민의 그릇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유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아마도 국내 정유산업이 출발할 당시 메이저가 그것을 담당하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던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이익의 침탈”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듯하고, 더우기 제1, 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기름 값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멀리 있는 OPEC 산유국이나 메이저보다는 가까이 있는 국내 정유회사들이 원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정유산업은 엄청난

설치비용과 운전자금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허용이익률과 정부고시기격체계속에서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고 실제로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83~'88년 기간중 정유산업의 매출액 이익률은 1%에도 못미치는 0.8%로서 제조업 평균이익률 1.6%의 절반에



앞으로의

역점활동부분을 든다면 정유업계와 유통업계를 망라하여 그들 상호간에 분열된 의견을 통일시켜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과 정유산업에 대한 국민의 그릇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불과합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 2.9%, 가전산업 1.7%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석유협회는 소비자들의 신뢰나 우호적인 여론이 경영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정유업계의 이러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신과 오해를 씻어내고 석유산업이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석유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사태로 석유의 안정공급확보 문제가 다시 한번 클로즈업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석유산업의 대외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석유협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나 지금이나 국민경제의 성장 발전은 농공업은 물론, 발전이나 수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충분한 에너지원의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소요원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원유도입에 의한 국내정제방식을 기조로 하고 있어 석유업계의 주요과제 또한 원유의 장기안정확보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통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하여 비축물량의 확보, 석유기금의 설치운영, 원유도입선 다변화, 석유개발사업 참여등 석유위기의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석유협회로서도 회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고 업계와 정부간의 원활한 창구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산유국과 현물시장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 분

석,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여 업계의 진로모색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유산업의 자율화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석유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또 석유업계 일각에서 기업의 창의성과 경제상의 자율성이 주창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유와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국민경제와 국방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석유수급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부규제는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도입에 의한 소비지정제주의에 입각하여 장단기석유수급계획에 따라 각종 연산 석유제품을 정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하는 일반수입상이나 석유수요처에 의한 개별적 완제품도입은 엄격하여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유업계가 직면하게 될 시련과 변화는 그 어느때보다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동에 송죽의 기개가 빛나고 난세에 충신을 생각한다는 옛말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렵고 힘들수록 석유협회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석유업계의 조화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민복에 이바지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석유협회보를 애독할 것입니다. 협회 창립 10주년기념집 발간에 즈음하여 흡족한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석유협회와 석유협회보의 무궁한 발전을 축복하는 바입니다.』♣

□ 기 행 □

물은 흐르다 바우에 부딪치고

문경 새재는 언제 가도 좋다. 수줍은 촌색시같이 호젓한 오솔길이 있는가 하면 바로 곁에는 월악산, 주흘산등 우람한 산세가 한쪽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소리 바람소리 어우러진 곳에 友人과 정담을 나누며 걸을 수 있는 오솔길은 정감이 넘친다. 그윽하고 정갈한 분위기가 돋보인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예외없이 눈썰을 찌푸리게 하는 쓰레기와 오물의 공해를 볼 수 없어 더욱 호감이 간다. 때묻은 마음의 옷을 벗고 숲속에 들어서면 샘물처럼 그리움처럼 흐르는 술향기, 상수리향기가 싱그럽다.

새재 위의 제3관문에 서면 그 옛날 청운의 뜻을 품고 한양에 과거보러 올라오던 선비들의 숨결이 귀에 들리는 듯 하다. 아마 그들은 여기서 시원한 샘물로 목을 적시며 장원급제의 푸른 꿈을 가다듬었으리라.

새재에 오르는 길가에는 주막이라는 이름의 휴게소가 몇군데 있어 나그네의 발길을 유혹하는데, 조곡관 주막앞

현판에 쓰여져 있는 권주시 한편이 나그네의 눈길을 끌게 한다. 정감과 운치가 넘치는 멋드러진 시다. 하도 마음에 들어 한번 외어 보았다.

물이 흐르다 바우에 부딪치고
바람은 스치다 나무잎에 운다.
문경새재는 아직도 십리길.
나그네여 발걸음 멈추고
한잔 술 어찌리.

이 시를 읊노라면 목가적인 그 옛날의 숨결이 가슴을 살포시 적신다. 그리고 한잔술이 생각난다. 문경새재 오솔길은 때묻은 마음의 옷을 벗게 해준다. 금년 들어 벌써 세번이나 이곳을 다녀왔다. 그동안 미루었던 여름휴가도 이곳으로 다시 갈까 생각해 본다. <洽>